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㉘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7)-기타 소직(小織)

선원의 중요한 소임은 전변에도 언급했지만, 6명의 지사(六知事)와 6두수(六頭首)이다. 이들이 주지(住持)를 보좌하여 총림을 운영한다. 그러나 6지사와 6두수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이들을 보좌하는 30여 개의 작은 소임이 있다. 이것을 소두수(小頭首) 혹은 소직(小織)이라고 한다.

소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중료(衆寮, 대중방, 큰방)를 관리하고 있는 요주(寮主)이다. 다른 말로는 요원(寮元), 요수좌(寮首座)라고도 한다. 중료(衆寮)는 추해(抽解, 옷을 풀고 쉬다), 차(茶), 간경(看經), 기타 잡무를 보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방' 또는 '대중방'이라고 한다. 선당(禪堂)이 좌선과 취침 등의 공간이라면 중료는 기타 일상생활 공간이다.

가방화주(街坊化主)는 '가방(街坊)' 또는 '화주(化主)'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화주(化主)와 같다. 화주란 원래 중생을 교화하는 교화주(教化主)의 준말로서, 곧 부처님이나 장로(長老) 또는 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것이 변하여 화주가 된 것이다. 화주는 인가(人家)나 저자 거리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맺어 줌과 동시에 보시(施捨)를 받아 사원에서 쓸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이다. 초기 선종사원은 재정적으로 빈약해 이들이 이름 그대로 거리(街)나 방방곡곡(坊坊曲曲)을 다니면서 화주를 한 적이 있었다.

중료, 선원 소직 중 중요성 으뜸

혜능 선사도 행자시절 마두 소임

화주(가방화주)는 다양하다. 조죽(朝粥, 아침은 죽 공양)꺼리를 화주해 오는 죽가방(粥街坊), 쌀과 보리를 화주해 오는 미맥(米麥)가방, 채소를 화주해 오는 채가방(菜街坊), 된장 등을 화주해 오는 장가방(醬街坊) 등이 있었다. 모두 일시적인 소임이었다. 마두(茶頭)는 다각(茶角)으로서 차를 끓이는 소임이다. 승당(僧堂, 禪堂)의 다각 외에도 수좌가 거처하는 당우인 수좌료(首座寮)의 다각, 유나료(유나의 거처)의 다각, 지객료(지객의 거처)의 다각, 고원(庫院)의 다각, 주지(住持)의 시자료 다각 등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었다. 각 요사의 다두는 보통 행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다두행자(茶頭行者)'라고 한다.

원두(園頭)는 원주(園主)라고도 하며, 채소밭을 관리, 담당하는 소임이다. 제 때 채소를 재배(栽培)해서 고원(庫院, 주방)에 공급해 주는 소임으로 <칙수백장정규> 열직잡무(列職雜務) 장에는 "근고(勤苦)를 견디지 말고 몸으로 손실해야 한다. 채소를 파종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을 주고 길러서 파장에 공급해야 한다. 채소가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두가 재배하는 채소는 주로 상추·순무·근대·가지·호박·오이·해바라기·무·장다리·시금치·난향(蘭香, 香味料의 일종)·결명자(決明子)이다. 결명자 씨앗은 간(肝)의 열(熱)을 내리서 눈을 밝게 하며 두통, 변비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감(農監)과 같은 소임이다.

마두(磨頭)는 마주(磨主)라고도 하는데, 방앗간에서 쌀과 밀가루 등을 빻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정미(精米)·제분(製粉) 담당인데, 그 유명한 육조혜능 선사도 행자 시절(노명)에 8개월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한다. 6조혜능이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로 쌀을 빻는 장면은 여러 사찰의 벽화에도 나온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몇 백명이나 되는 대중들의 공양미를 혼자 디딜방아로 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림에는 마원(磨院)이라고 하여 오늘날 말하면 정미소가 있었는데, 정미(精米)나 제분(製粉)은 연애라고 하는 큰 맷돌을 사용했다. 맷돌에는 당나귀나 말을 이용하는 육연애와 물을 이용하는 수연애가 있었는데, 당나라 때는 주로 물을 이용하는 수연애를 사용했고, 송대에는 육연애를 사용했다고 한다. <칙수백장정규>에는 "마두는 반드시 도심(道心)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쌀 한 알, 곡식 한 알도 함부로 해서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마호(磨糊)라는 소임이 있는데 마호는 빨래에 먹이는 풀 쭈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근래 책에서는 마호를 마두(磨頭)라고 한 곳도 있다. 제분을 하게 되므로 풀 쭈는 것까지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미, 제분 담당인 마두와 풀 담당인 마호가 다른 소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장주(莊主)는 농장을 관리하면서 일꾼들을 부리며 또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받아들이는 소임이다. 송대에는 황실이나 사대부들로부터 많은 토지가 기증되어서 선종총림의 장원이 비대해졌다.

수두(水頭)는 욕실과 세면장 등에 물을 공급하는 소임으로 수도(水道) 담당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기상 때 사용하는 운수를 끓여서 공급하는 일이다. <칙수백장정규> 열직잡무 장에는 "반드시 오경(4시)에 탕(더운 물)을 끓여서 대중의 세수, 양치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두(米頭)는 대중의 양곡과 쌀 등을 맡아 관리하는 소임으로서 미감(米監)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공양미 지출을 담당한다. 공양주가 임의로 쌀을 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감이 상주 대중과 외부 손님 등을 계산한 다음 적정량의 양곡을 내 준다.

노두(爐頭)는 화롯불 담당이다. 당송대 선종사원은 온돌방이 없고 모두 마루였다. 여름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냉기가 돌고 몸이 으스스할때문에 화로를 피웠다. 냉기를 없애는 정도였는데 연로는 솟아있다. 솟불 화로인데, 음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2월 1일에 철수했다.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 개로(開爐)라고 하고 철거하는 것

빨래 먹일 풀 쭈는 소임도 있다



소직 중 가장 중요한 직책인 요주는 중료를 관리한다. 사진은 해인사 지대방에서 스님들이 차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을 때로(閉爐)라고 한다.

탄두(炭頭)는 숯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소임인데 숯은 겨울철 화로(火爐), 난로(暖爐)와 차를 달이는 데 사용했다.

화두(火頭)는 부엌에서 불을 때는 소임이다. <선원정규>에는 "화두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물론 선종사원도 온돌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두는 주로 고원(庫院, 주방)에서 불을 피우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인 것 같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대(火臺)와 같은 소임인데, 우리나라 화대는 각방에 불을 때는 소임이다. 주로 행자가 담당한다.

육두는 6두수 일원인 요직

예불 및 법회는 중두 소임

육두(浴頭)는 목욕탕을 관리 담당하는 소임이지만 우두머리가 아니고, 우두머리인 지욕(知浴)이나 욕주(浴主)를 돕는 행자를 말한다. 육두는 소직이지만 지욕이나 욕주는 6두수의 일원으로서 요직이다.

반두(飯頭)·공두(供頭)·공사(供司)·공양주(供養主)는 모두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임인데 명칭만 다를 뿐이다.

채두(菜頭)는 반찬 등 부식물을 만들거나 그 재료인 야채를 관리하는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공

(菜供)이라고 한다.

중두(鐘頭)는 조석 예불 및 법회 등이 있을 종을 치는 소임이고, 정두(淨頭)는 동사(東司) 즉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소임이고, 시두(屎頭)는 똥나무를 관리, 공급하는 소임인데 부목과 같다.

연수당주는 열반당주로서 간병을 맡고 있는 소임이다. 등두(燈頭)는 등불, 등유(燈油)를 관리, 담당하는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등(明燈)이라

고 한다. 주로 장병등, 무진 등 불전(佛殿)이나 대중전 등 전각 앞에 등불을 관리, 담당한다. 정인(淨人)은 속인으로서 사찰의 잡무 혹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hanmail.net

선원 총림의 직책

소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나누어 서술했는데, 전회(前回)까지 열거된 소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했다.

| 직책 | 소 임 |
|----|--|
| 수좌 | 교육 담당으로서 수행을 지도함. |
| 감원 | 서무(庶務), 재무, 재정, 살림살이 등 선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소임. 송대에는 업무가 많아져서 도사(都寺)·감사(監事)·부사(副寺)로 분할됨. 가장 중요한 직책이 수좌와 감원임. |
| 도사 | 서무와 사무를 담당함. 오늘날 총무와 같음. |
| 감사 | 선원의 내부 실력을 담당. |
| 부사 | 재정 금전 출납 담당으로서 오늘날 재무와 같음. |
| 유나 | 총림의 모든 규율·규칙을 담당하는 소임. 기강(紀綱) 담당. |
| 열종 | 기강을 담당하는 소임으로서 유나의 이칭임. <선원정규> 3권 "梵語維那 此云悅衆" |
| 서기 | 서장(書狀)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표문(表文)·축원문·문서·서류·공문 작성 등 문헌(文獻) 담당. |
| 지장 | 장주(藏主)이라고도 하는데, 장경각, 서고(書庫) 관리 담당. |
| 지객 | 행각상, 신도 등 접빈 담당. 모든 객을 접대, 안내하는 스님. |
| 지욕 | 욕주(浴主), 목욕탕 관리 담당. |
| 고두 | 창고를 관리하는 소임. 당말(唐末), 송초(宋初)까지는 미맥재화(米麥財貨)의 수지 출납 일체를 맡았음. 부사(副寺)의 전(前) 명칭. |
| 전좌 | 주방 담당. 주방장. 대중의 식사 일체를 관리, 담당함. |
| 직세 | 도량, 건물 보수, 관리 및 산림(山林) 관리를 담당하는 소임. 작무 담당 (참고: 어디에는 원주라고 한 곳도 있으나 잘못임) |
| 지전 | 불전(佛殿), 대중전을 관리하며 불공, 의식을 집전하는 소임.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고 불경기에도 용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부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부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용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뽕이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원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재사교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달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달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달라니 복지

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탁쳐울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역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매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